



제191호 2025년 1월 31일(금) www.gyewoo.org

桂友會報



1908
雄遠·勇堅·誠信





중앙챌린지

중앙을 사랑하는 마음, 챌린지로 확인해 보세요.



하나, 중앙챌린지란?

중앙을 사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캠페인입니다.

분기마다 CMS 자동이체로 회비를 납부하고, 두 명 이상의 교우를 지목해 참여를 확산시킵니다.

교우 간의 연결을 강화하며, 중앙의 가치를 함께 지켜나가는 활동입니다.

둘, Benefits

1. 교우회비 납부 인정
 - 애경사 혜택(근조기 제공)
2. 고대 안암 병원 검진 혜택
 - 25% 검진 할인 제공
3. 연말 이벤트
 - 최다 참여 기수 연말 특별 이벤트

셋, 참여방법

중앙챌린지 홈페이지의 활용

- CMS 자동이체 동의를 통해 챌린지 참여
- 두 명 이상의 동문을 지목하여 챌린지 확산





桂友會報

제191호 2025년 1월 31일(금요일)

www.gyewoo.org

CONTENTS

04 · 13 교우회 소식

04 2025 교우회장 신년사

‘중앙챌린지’를 시작합니다

‘2025 행복DREAM상자’ 전달식

‘2024 중앙교우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

12 한형석(58회) 교우 인터뷰-2024 ‘평생공로상’ 수상자

젊은이여, 중앙학교의 교지(校旨) ‘옹원’(雄遠)을 마음에 품고 ‘높은 이상을 가지세요’.

13 최광식(62회) 교우 인터뷰 – 2024 ‘자랑스러운 중앙인상’ 수상자

중앙학교에서 배운 ‘公先私後 信義一貫’은 공직 수행의 모토였죠.

14 · 15 모교 소식 1학년 교육 여행 외

16 · 19 동기회 소식 66회 동기회 중앙육동합창단, ‘제10회 정기연주회’ 성공적 개최 외

20 · 21 지부/동아리 소식

KBF(계산비즈니스포럼), 30년 역사 속 새로운 도약의 시작

JRC, 신년회 행사 “순궁으로 연결된 과거와 현재” : JRC역사와 함께 달리다 외

22 · 23 언론 속 중앙인

김재관(41회) 교우, 그가 없었다면 포철도 없었다

김구(72회) 교우, ILEF Foundation CEO Kim Koo aims to bridge US- Korea relations

이대만(중 73회) 교우, ‘위대한국민대상’ 수상

24 교우 소식

임창식(55회) 교우, ‘제16회 사이버 영토 수호 마라톤 대회’, 최고령 참가자 ‘특별상 수상’

김창완(62회) 교우, 보관문화훈장 수훈

25 기획 연재 / 김영철의 ‘중앙 출신 문인 탐방’ #19 ‘정계야화’의 방송작가 대부, 김기팔

26 서예가 오현(梧軒) 이곤(42회) 교우를 追悼하며

27 경조사

28 · 29 2024년 교우회비 납입 현황 / 장학금 등 기탁 내역

30 2024 중앙교우회 운영기금 수지 계산서

31 2025년 중앙교우회 주요일정

편집디자인 정규호(70회) 편집위원 / 표지 사진 성호환(95회) 편집위원

<계우회보 편집위원회>

편집 고문 공종원(49회), 송선무(49회), 유광렬(55회), 한왕석(56회), 윤진호(59회), 김석규(62회), 김영규(66회), 손창수(66회), 이승철(66회), 정해영(71회),
김정성(72회)

편집 위원 정규호(70회), 정규태(74회), 최민호(75회), 서동천(77회), 서범준(80회), 임인호(80회), 전승훈(80회), 김진석(81회), 이덕주(91회), 성호환(95회)



1908
雄遠·勇堅·誠信

중앙교우회보 1921년 창간 / 개칭『계우회보』 재창간일 1972년 10월 16일 간별 계간 발행인 임정혁 편집인 이서구 편집장 정규태
발행처 중앙교우회 서울시 종로구 을지로 80-1 보승빌딩 5층 / Tel : 02)756-0762~3 Fax : 02)756-0789 / E-mail : gyewoo100@hanmail.net



2025 교우회장 신년사

‘다 함께하는 교우회, 다 함께 성장하는 교우회’의 정신으로 더 큰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존경하는 중앙교우 여러분,

2025년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희망과 도전이 가득한 이 해, 교우회와 모교를 위해 아낌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지난해 중앙교우회는 ‘다 함께하는 교우회, 다 함께 성장하는 교우회’라는 슬로건 아래, 교우 간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며 새로운 도약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선후배 간의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모교와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뜻깊은 한 해였습니다. 이는 모두 교우 여러분의 참여와 열정 덕분이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한 중앙교우회는 2025년에도 ‘다 함께하는 교우회, 다 함께 성장하는 교우회’의 정신으로 더 큰 걸음을 내딛겠습니다. 교우회는 여러분이 가정과 직장에서 빛나는 성취를 이룰 수 있도록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드릴 것이며, 모교 발전과 사회적 책임을 위한 노력에도 앞장설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우 여러분,

새해에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중앙교우회의 든든한 동반자로 함께 성장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우회가 중심이 되어 서로를 돋고 격려하며, 더 큰 도약을 이루어내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5년 한 해가 교우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을 가득 안겨주기를 기원합니다. 중앙교우회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서 함께하며, 교우회의 가치와 전통을 지키며 발전해나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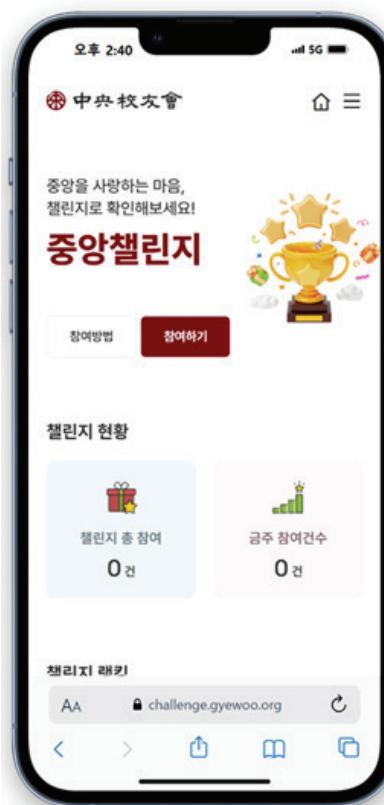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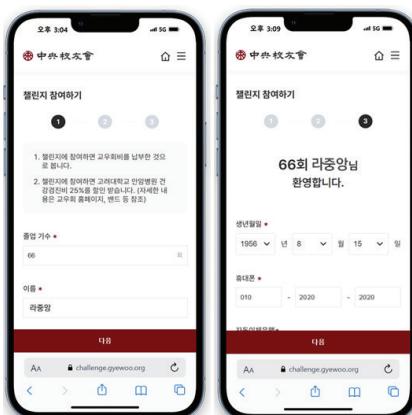
2025년 새해에
중앙교우회장 임정혁 배상



‘중앙챌린지’를 시작합니다

교우님의 도전이 중앙의 미래를 만듭니다!

중앙교우회는 2025년을 맞이하여 중앙을 사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중앙챌린지’를 시작합니다. ‘중앙챌린지’는 참여자 간의 연결을 통해 모교와 교우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분기마다 CMS 자동이체로 회비를 납부하고, 세 명 이상의 교우를 지목해 참여를 확산시키는 캠페인으로 교우 간의 연결을 강화하며, 중앙의 가치를 함께 지켜나가는 활동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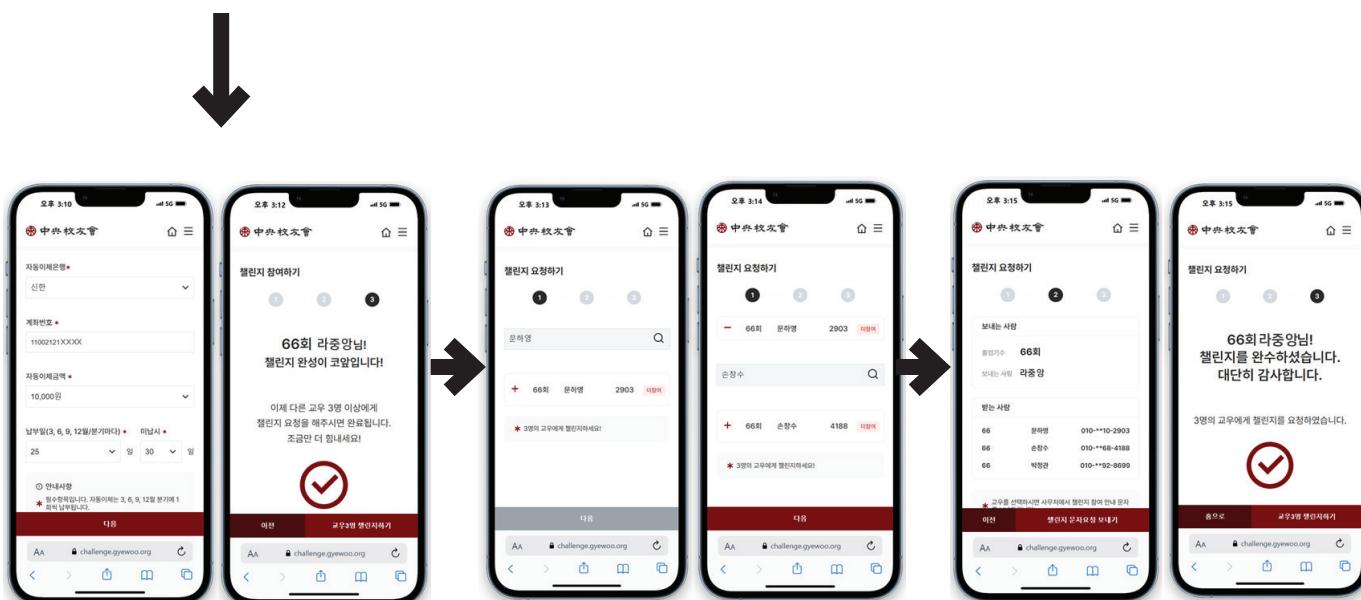


참여방법

- 챌린지에 참여하면 교우회비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 챌린지에 참여하면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건강검진비 25%를 할인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우회 홈페이지, 밴드 등 참조)

순서

- 챌린지 앱을 깔고 실행합니다.
- 챌린지 참여하기 화면에서 본인의 졸업 기수와 이름을 입력합니다.
- 챌린지에 참여하지 않은 교우 3명 이상을 선책하여 챌린지를 요청합니다.





교우회 소식

‘2025 행복DREAM상자’ 전달식

중앙학교 인근 취약계층에 3년째 설 선물 전달



모교 본관 앞에서 진행된 행복드림상자 전달식 단체 사진

2025년 1월 23일, 중앙고등학교에서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2025 행복DREAM상자 전달식’ 행사가 열렸다. 이 행사는 중앙교우회, 중앙학교 그리고 종로구청의 협력으로 진행되었다. 올해로 3년째 맞은 이 행사는 중앙고 인근에 거주하는 차

상위계층 및 저소득층 가구에 설을 맞이하여 설 명절에 필요한 음식과 필수 약품 등을 지원하는 행사로서 교우들이 자발적으로 후원한 1,437만 원으로 구입한 물품들은 종로구 내 취약계층 40 가구에 구호물품으로 전달했다.



재학생들이 동네 어르신들을 직접 방문하여 새해 덕담을 나누며 드림상자를 전달하고 있다.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임정혁 중앙교우회장, 이용균 고등학교 교장, 최용석 중앙중 교장, 정문현 종로구청장 등의 참석 인사가 교장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교우회에서 이서구(72회) 사무총장, 김승모(80회) 조직위원장, 김정호(81회) 행사위원장, 성호환(95회) 사무국장, 최서윤 간사 등이 배석했다. 간담회에서 중앙학교의 역사적 의미를 알리기 위한 방안으로 중앙고등학교 정문에 학교의 역사를 담은 안내판을 설치하자는 의견이 논의되었다. 3·1운동 발상지와 6·10 만세 운동을 주도하는 등 중앙학교가 지닌 역사적 자산을 알리는 아이디어에 종로구청장은 적극 공감하며 긍



교우회 소식



교사와 교우회 임원이 미술실에서 패킹 작업을 하는 재학생들과 함께 찍은 사진



교우회장이 재학생에게 구호물품 전달을 요청하고 있다.

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행사는 오전 11시 중앙고 미술실에서 시작되었다. 서승원(80회) 교사의 지도로 중앙고 스카우트 학생 10명과 중앙중 스카우트 학생 3명이 참여해 2시간 동안 정성을 다해 구호물품을 포장했다. 행복드림상자는 쌀, 밀키트식품, 생활용품 등 생필품으로 구성했으며, 학생들은 꼼꼼히 물품을 챙기며 비장한 마음가짐으로 임했다. 패킹을 마친 행복드림상자는 종로구청 트럭을 통해 취약 계층 40가구에 전달되었다. 중앙고와 중앙중 스카우트 학생 대원들은 직접 각 가정을 방문해 어르신들께 상자를 전달하며 따뜻한 정과 마음을 나누었다. 이번 전달식은 중앙교우회와 중앙학교가 지역사회를 위한 실질적인 나눔을 실천하며, 학교와 지역 주민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앞으로도 중앙학교가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5 중앙교우회 행복드림상자 구성품 및 후원

번호	구성품	후원	비고
1	삼양라면 400개, 페리오 뉴후레쉬 일파치약 80개, 샤워메이트산양유 비누60개, 칫솔 40세트	65회 전명익	80만원 상당
2	김치시즈닝 43개, 고려삼계탕 43개, 도가니탕 43개, 문어탕국 43개, 버섯소고기죽 43개, 단호박죽 43개, 얼큰해장죽 43개, 특전복죽 43개, 특삼계죽 43개, 전복소갈비탕 43개, 소고기육개장 43개, 생수 200ml 20개입 6박스, 아워홈 새해 인사 엽서	65회 이영열 / 아워홈	360만원 상당
3	LED 돋보기(3.5 & 45 배율) 40개, 극세사탕을, 40 x 60 cm, Yellow Color 40장, 방사선관리구역 개선 장갑, 40켤레	65회 고영묵	60만원 상당
4	유산균 42개	66회 김영진	250만원 상당
5	ALIO 도킹형 접이식 단자 아이히팅 5000mAh 손난로보조배터리 42개	82회 문지인	70만원 상당

6	신라면 200개, 커피믹스 모카골드 100T 40개, 스팸 3개 40세트, 비비고 사골곰탕 3개 40세트, 해표 식용유 500ml 40개, 오뚜기 참기름 320ml 40병, 오뚜기 들키름 320ml 40병, 광천김 40세트, 햅쌀 국산 5KG 40포대	중앙교우회	360만원 상당
7	대원제약 건강보조식품 2세트	66회 백승호	200만원 상당
8	떡국떡 1봉지(1.25kg) 총 50kg	80회 김승모	50만원 상당
9	라면 78개	94회 양지환	7만원 상당
10	총 계 : 1,437만원 상당		

2025 계우회 조찬포럼

일 시
2025년 2월 11일 (화) 오전 7시
장 소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 3층 금수룸

강 사
최광식 (62회)
前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주 제
한류 1.0에서 4.0까지

이번 포럼은 한류의 진화 과정을 짚어보며,
대한민국 문화가 세계에 미친 영향을 논의하고 미래를 함께 구상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한류의 여정을 함께 살펴보고, 그 속에 담긴 문화적 비전과 경제적 가능성을
논의하는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교우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프로그램 안내

7:00 ~ 7:10	등록 및 환영 인사
7:10 ~ 7:40	조 식
7:40 ~ 8:30	강연 '한류 1.0에서 4.0까지'
8:30 ~ 8:40	질의응답 및 기념촬영

문의 및 신청

사무국	010-3848-1908
이메일	gyewoo00@daum.net
참가비	3만원 - 하나은행(재단법인 계우회) 920-910005-01604

좌석이 한정되어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 참여 여부를 미리 알려주시면 행사진행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

재단법인계우회



교우회 소식

‘2024 중앙교우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

400여명 참석 교우, 새해에도 ‘다함께하는 중앙교우회’를 위하여



400여명의 교우들로 꽉 찬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 그랜드볼룸

어느덧 12월, 올해도 어김없이 1년을 마무리하는 송년회 시즌이 찾아왔다. 중앙교우회에서도 12월 5일 오후 6시, 앰배서더 서울 풀만호텔 그랜드볼룸에서 1년을 결산하는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했다. 접수대에서 등록하고 명찰과 행운권을 받아 행사장으로 들어갔다. 400여명의 교우가 참석해 훌륭한 메운 가운데 각 기수별 테이블에는 와인을 마시며 동기, 선후배들이 덕담을 나누며 본 행사를 기다리고 있었다. 1부에서는 정기총회, ‘자랑스러운 중앙인’ 및 ‘올해를 빛낸 중앙인’ 시상식, 2부는 식사 및 축하공연으로 식순이 이어졌다.

고철희(78회·기획위원장) 교우의 사회로 1부의 행사가 시작됐다. 국민의례에 이어 중앙을 빛낸 여러 교우들이 참석했지만 이상혁(44회) 교우, 송선무(49회) 교우, 김강희(53회) 교우, 한형석(58회) 교우, 최광식(62회) 교우, 서정호(62회) 명예회장, 채정석(65회) 명예회장, 윤용로(65회) 계원장학회 이사장과 이용균 중앙고 교장, 최용석 중앙중 교장을 비롯해 재학생 대표까지 참석 내빈 소개가 이어졌다. 최고 기수로 구순이 넘은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혁(44회) 교우가 참석해 열렬한 환영의 박수를 받았다.

임정혁 교우회장은 “다 함께하는 중앙을 만들고자 1년동안 많



400여명의 교우들 앞에서 인사말을 하는 임정혁 교우회장



모교 이용균 교장의 인사말 모습



육동회 합창단의 공연 모습



평생공로상을 수상한 한형석 교수를 축하하려 무대에 오른 58회 동기들



자랑스러운 중앙인상을 수상한 최광식 교수를 축하하려 무대에 오른 62회 동기들

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중앙은 여러 선후배 교우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분들의 열정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교우 여러분들이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며 인사말을 전했다. 이용균 중앙고교장은 재학생들까지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문을 열며 올해 좋은 대입 성과가 있었다는 얘기에 교우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계원장학회 등 교우회의 지원으로 학교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울 노력하여 학교 발전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라며 인사말을 마쳤다.

이어서 이서구(72회) 사무총장이 올해 교우회에서 행한 주요 사업 소개가 있었다. 모교의 졸업식과 입학식, 3·1운동 기념식 및 등반대회를 시작으로 개교 기념일, 교우의 날 행사, 삼건대회, 중앙 당구대회 개최 등 1년 동안 교우회가 얼마나 바쁘게 돌아갔나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사무처 보고에서는 교우회의 재무보고, 계원장학회의 재무보고, 계우회보의 재무보고 등 교우회의 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2025년 예산안 승인을 박수로 통의 받아 정기총회에서 내년 예산안이 통과되었고 이제는 시상식의 시간이다.

‘2024 제35회 올해를 빛낸 중앙인상’은 3명의 교우가 수상했다. 문하영(66회) 교우는 체코주재 대한민국 대사로 양국 관계를 강화하고 한국-체코의 협력을 증진한 기여로 수상했다. 김경환

(67회) 교우는 서강대 교수로 후진을 양성하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으로 주택 금융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로 수상했다. 문정대(82회) 교우는 쥐젠바디 연구소장으로 바이오 의료기기 기술 선구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한 공로가 있다. ‘제35회 자랑스러운 중앙인상’은 최광식(62회) 교우가 수상했다. 최 교우는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이며 문화체육부장관, 국립중앙박물관장, 문화재청장 등을 역임하며 대한민국의 문화 유산의 보존과 문화예술계의 발전에 기여하며 중앙인의 위상을 드높혔다. 최 교우는 “2008년에 올해를 빛낸 중앙인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인촌 선생님, 김용식 장관님, 김형석 교수님 등 기라성 같은 분들이 받으셨는데 중앙을 위해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라며 소감을 남겼다. ‘제35회 평생공로상’을 수상한 한형석(58회, 이노맥스 회장) 교우는 혁신적인 기업가로 한국 경제 발전을 선도했을 뿐만 아니라 중앙에 대한 열정과 사랑으로 모교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평생공로상을 수상했다. 한형석 교우는 “수상이 부끄럽지만 중앙을 위해서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감사히 받겠습니다”라는 소감을 피력했다. 수상을 축하하기 위해 동기회에서 꽃다발을 증정하며 단체사진도 찍으며 교가가 흘러 나오는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시상식은 마무리됐다.

시상식을 마치고 중앙챌린지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앙챌린지는 중앙을 사랑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며 참여자 간의



구순이 넘은 이상혁(44회) 교우가 건배사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를 외치는 모습

연결을 통해 모교와 교우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만든 프로젝트이다. 챌린지 소개를 맡은 황교찬(85회·IT위원장) 교우는 단상에 올라 스마트 폰으로 챌린지에 참여하는 방법을 시연했다. 디지털 기기에 취약한 선배들을 위해 80~90회 기수들이 테이블을 돌며 성공한 선배들에게 박수도 보내며 친절히 설명하면서 중앙챌린지를 시연했다.

다음 순서는 66회 '육동합창단'의 공연. 흥겨운 반주에 맞춰 '빨간 구두 아가씨'와 '아빠의 청춘'을 부르니 교우들은 손뼉을 치며 호응했다.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 브라보 브라보~~ 아빠의 인생. 많이 듣던 노래였는데 뭔가 와 닿는 가사에 교우들의 박수 소리가 훌에 가득하다. 다음 곡은 '10월(12월)의 멋진 날'에였는데 무대 위에서 악보를 보며 화음을 맞추는 노신사들이 모습 자체가 12월 보다 더 멋져 보인다. 앵콜이 쏟아지는 가운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교우들의 박수를 유도하며 밝고 경쾌한 크리스마스곡 '펠리스나비다'를 불렀다. 노래가 끝났는데도 후렴구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가 귓가에 맴돈다.

1부 순서를 마무리하는 건배제의 시간. 이상혁(44회) 교우는 또렷한 기억으로 중앙 장학회를 설립하고 계동 골목 복개 정비 사업을 펼친 일 등을 회상했다. 건배사는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나가자~~' 나가자~~를 3회 반복하며 노선배의 뜻 깊은 건배사를 끝으로 1부의 행사는 마무리하고 만찬의 시간으로 넘어갔다.

2부의 시작은 중앙응원가가 훌려나오는 가운데 에피타이저를 시작으로 코스 요리가 나오는 만찬의 시간이다. 허기진 배도 채우고 와인을 곁들이며 동기들끼리 맛있는 식사를 즐기는 가운데 식사가 끝날 무렵 축하공연이 시작됐다. 초대가수는 Zgoo(진희민). 77회 진영우 교우의 막내딸로 싱어송라이터를 활동하며 3집 앨범까지 냈다. 중앙 교가를 부르면서 등장하는데 역시 가수는 가수다. 첫곡은 3집 싱글 '바라봐줘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노래라고 하는데 감미로운 목소리로 교우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큰 박수를 받았다. 두 번째 곡으로 뮤지컬 곡을 불렀는데 눈앞에 한 편의 뮤지컬을 보는 듯한 느낌을 주며 교우들로부터 앵콜을 받으며 커다란 호응을 받았다. 유튜브에 Zgoo 검색해 구독을 눌러 중앙교우들이 화답할 차례다. 흥에 겨워 무대에 오른 최환석(63회) 교우는 노래도 부르고 장학금을 내겠다고 공언했는데 며칠 후 계원장학회에 300만원을 기탁했다.

식사를 마치고 모두가 기대하는 경품권 추첨의 시간이 왔다. 협찬이 많아 시간이 꽤 흘렀음에도 번호가 불릴 때마다 환호성이 들리고 탄식이 교차한다. 중앙챌린지에 가장 많이 참여한 77회 동기회에 푸짐한 경품이 지급되기도 했다. 400여명의 교우들은 2 절까지 교가를 다함께 부른 후 중앙마라톤 동호회 JRC 회원들이 무대에 올라 응원가 '나가자 중앙'을 선창하며 '2024년 중앙교우회 정기총회 및 송년회'는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교가가 훌려나오는 가운데 선후배들이 인사를 나누며 접수대에서 기념품을 받고 다시 건강하게 만날 것을 약속했다. 로비에서는 흥정식(60회) 교우가 '건강하게 100세 넘게 활기차게 살자'는 현수막을 들고 깜짝 이벤트를 펼쳐 귀가하는 중앙 교우들에게 유쾌함을 선물했다.

정규태(74회·편집장) 교우



열창하는 초대가수 싱어송라이터 Zgoo(진희민)



모두가 고대하는 경품권 추첨의 시간



중앙교우들의 건강을 기원하는 흥정식 교우의 깜짝 이벤트

2024 평생공로상 수상자
한형석 교우

• 한형석(韓炯錫·58회)
前 미국 회장
미국 노동 대표
미국 이민 대표
1949년 서울 출생

2024
평생공로상
자랑스러운 중앙인상
올해를 빛낸 중앙인상

수상을 축하합니다.

2024 자랑스러운 중앙인상 수상자
최광식 교우

제35회 자랑스러운 중앙인



• 최광식(崔光植·62회)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1953년 서울 출생

2024 올해를 빛낸 중앙인상 수상자
문하영(66회) 교우

귀 교우께서
는 주체코대
사로 국제 외
교 무대에서
탁월한 리더십

을 발휘했으며, 체코미래포럼 부의
장으로서 한국과 체코의 협력을 증
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셨습니
다. 중앙의 명예와 중앙교우의 이름
을 드높이는 업적을 이룩하셨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4 올해를 빛낸 중앙인상 수상자
김경환(67회) 교우

귀 교우께
서는 서강대
학교에서 후
진을 양성
해 왔고, 올

해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에 임명
되시어 주택 금융 제도의 안정화와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십니다. 중앙
의 명예와 중앙교우의 이름을 드높
이는 업적을 이룩하셨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2024 올해를 빛낸 중앙인상 수상자
문정대(82회) 교우(대리수상 한강희 교우)

귀 교우께
서는 (주)젠
바디 연구소
장으로서 국
내 바이오 기

술의 선구자로 산업통상자원부 장
관 표창 및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하
며 그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중앙
의 명예와 중앙교우의 이름을 드높
이는 업적을 이룩하셨기에 이 상을
드립니다.



한형석(58회) 교우 인터뷰 - 2024 '평생공로상' 수상자 젊은이여, 중앙학교의 교지(校旨) '웅원'(雄遠)을 마음에 품고 '높은 이상을 가지세요'.

1월 20일, 와이스퀘어 11층 사무실에서 평생공로상을 수상한 한형석(58회) 교우를 만났다. 한 교우는 2001년 '제13회 올해를 빛낸 중앙인상'을 수상했으며, 모교와 교우회를 위해 많은 금액을 기부하며 그 누구보다도 중앙을 사랑하며 헌신하고 지원해 온 인물이다. 건축학도에서 시작하여 前 마니커 회장을 거쳐 AI에 관심을 갖고 현재는 반도체 회사 (주)이노맥스의 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한 교우의 시대를 꿰뚫는 통찰력과 열정에 커다란 울림을 받은 하루였다.



면 중앙만큼 자부심이 크지 않았습니다. 최복현 교장 선생님이 강조하신 국가와 민족에 대한 의식도 그 때 생겼구요. 당시에 중앙은 야구의 전성기였습니다. 동기인 이광환, 이원국, 장제국 선수들이 있어 야구를 휩쓸던 시절이었고 신나게 학교에 다녔었죠."

평생공로상, 부끄럽지만 감사한 마음

"수상 소감을 말하려하니 부끄럽습니다. 별로 한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큰 상을 받게 되니 감사하면서도 후배들에게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한 교우는 자신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후배들의 노고를 더 높이 평가하며 매년 교우회를 위해 일하는 후배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며 격려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기억에 남는 교우회 활동으로 100주년 당시 수석부회장이라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비록 원하는 만큼 얻어내지 못한 아쉬움도 있지만,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된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보람된 순간이었다고 말했다.

중앙학교와 교우회를 향한 헌신의 시작

30대 초반, 한 교우는 교우회 활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한 교우는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채문식 교우회장이 국회의장보다 교우회장을 더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중앙에 대한 애정에 쇼킹했죠. 우측 언덕에 있는 석조건물은 1,000명 졸업했을 때 동문들이 모금을 해서 지은 건물이라며 중앙은 동문들의 것이라는 김각중 회장의 말씀을 듣고 학교에 대한 애정이 더 깊어졌고 동문회 활동을 하는데 동력이 됐습니다."

중앙학교에 대한 남다른 애정

한 교우에게 수십 년간의 헌신을 가능하게 한 원동력이 무엇이냐고 묻자, 주저 없이 "중앙학교에 대한 애정"이라고 답했다. "입학해서 도덕 시간에 학교에 대한 연보와 중앙에 대한 역사를 배워 모교에 대한 자부심이 컸죠. 5대 사립 다녔던 친구들에게 물어보

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특히,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거기에 몰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웠습니다"라며 젊은 시절에 읽었던 책이 지금의 자신을 만든 기틀이 되었음을 강조했다. 최근에 다시 읽어 보니 또 다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었다며 독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반도체 산업에 뛰어들다

3~4년 전, 한 교우는 (주)이노맥스라는 반도체장비개발 및 설계회사를 인수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그는 "반도체와 AI는 국가의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 산업입니다. 중앙학교의 교지(校旨)인 '웅원'(雄遠)의 정신 - 높고 너의 이상 - 을 늘 마음 속에 담고 이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라며 중앙학교의 유산이 성공의 밑거름이 되었다고 얘기했다. 다가올 미래의 변화상, AI의 세계, 양자(Quantum)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며 끊임 없는 호기심과 탐구력에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었다.

후배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한 교우는 후배들에게 자만하지 말고 끊임없이 배우라는 조언을 남겼다. "책 속에서 답을 찾으세요. 인생은 드넓은 바다와 같아 신중히 나아가야 합니다. 자신감은 중요하지만, 자만심은 금물입니다. 자신만만할 때 실수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건축에서 시작해 닦고기 사업과 반도체 사업까지 끊임 없이 도전한 이야기를 통해 '미래를 주도할 키가는 시장을 읽어내고 그 안에서 자신의 길을 찾을 것'을 당부했다.

정규태(74회·편집장) 교우



최광식(62회) 교우 인터뷰 - 2024 '자랑스러운 중앙인상' 수상자 중앙학교에서 배운 '公先私後 信義一貫'은 공직 수행의 모토였죠.

1월 7일, 고려대 교수를 정년하며 마련한 안암동 서재에서 2024년 '자랑스러운 중앙인상' 수상자 최광식(62회) 교우를 인터뷰하는 시간을 가졌다. 2008년 '올해를 빛낸 중앙인' 수상자이기도 한 최 교우는 학자로서 뿐만 아니라 제46대 문화체육부장관, 국립중앙박물관장, 문화재청장 등을 역임하며 한국문화의 우수성을 세계에 전파하여 중앙의 위상을 높인 공을 인정받아 이 상을 수상했다.

중앙학교 시절의 회고

"중고등학교 6년을 다녔는데 농구에 빠져 공부보다는 농구를 열심히 했었죠. 정몽준 선배와도 같이 농구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홈룸(HR) 시간을 좋아했는데 서로 의견을 발표하고 토론하면서 자신감도 키웠고 공직 수행과 학문적 여정에서 팀워크와 협력의 중요성을 깨닫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인촌 선생님의 가르침인 '공선사후 신의일관'(公先私後 信義一貫)은 제가 공직을 수행하면서 모토로 삼았습니다. 중앙학교는 제게 개인보다는 조직이나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며 어떤 판단을 내릴 때 신뢰와 신의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자아를 찾기 위한 노력

"저는 처음에는 건축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공학에 소질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된 후 대학을 반년쯤 다니다보니 '자신의 소질과 재능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쳤습니다. 삶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 자아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방학 때 짐을 싸들고 북한산으로 떠났죠. 며칠동안 혼자 산주변 인가에서 라면을 끓여 먹으며 '나는 앞으로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까?'를 스스로에게 물었죠. 그때 느낀 것은 단순하지만 명료했습니다. 내 길을 찾는 것은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이었죠." 젊은 시절의 강렬한 실존적 경험이 본인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다는 일화를 들을 수 있었다.

법고창신(法古創新) 정신으로 한국학의 정립과 한류

고대사를 전공한 계기는 대학시절 독서토론 모임(호박회) 회장을 하면서 토릭을 정해 공부하고 토론을 했죠. 그 때 무속신앙, 불교신앙, 무속사, 천주교, 동학 등을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이렇게 사상사를 공부하다 보니 한국 사상의 원류가 바로 고대사였



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류가 대중문화에서 시작했지만 학자의 입장에서 한국학에 대한 단단한 기초가 있어야 합니다. '한국학의 정립과 한류'가 최근의 관심사이며 최근에는 법고창신(法古創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류를 열심히 공부하며 외부 강연도 다니고 있습니다."

결단력과 추진력으로 이룬 공직 생활의 보람과 성과

"1999년 중국에 한국사를 강의하러 갔는데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죠. 동북공정(東北工程)을 추진하는 것을 알게 되어 가만히 있을 수 없었죠. '고구려사왜곡대책위원장'을 맡아 북한도 수십 번 방문하였고 당시 고대 박물관장이었는데 북한의 유물을 가져와 고려대 박물관에 전시하는 사업을 하며 역사 왜곡과 훼손을 막으려 노력했고 언론사에 글도 많이 쓰고 해서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습니다." 최 교우는 문화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시절 한글날을 법정 공휴일로 제정한 일이 가장 보람 있었다고 언급했다. "한글날 공휴일 제정은 한글의 가치를 국내외에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우리 글과 문화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하며 그 성과에 깊은 자부심을 드러냈다.

최근의 근황과 중앙 동문에 바라는 점

"한문 서예를 오랫동안 했지만 '우리 한글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문화적 자산으로 키워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 한글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한글이 가진 예술적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글날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할 정도로 한글 사랑에서 나온 최 교우의 개인적인 경험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최 교우는 "120년은 두 번의 60년을 지나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전통에서 60은 한 바퀴를 돌아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죠. 중앙고도 120주년을 기점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데 하루 빨리 교우회관을 건립해서 선후배와 동기들이 오가며 소통하고, 후배들이 더 큰 꿈을 꾸며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으면 합니다"라며 교우회관이 중앙의 전통과 유대를 상징하며, 앞으로의 새로운 60년을 준비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며 인터뷰를 마쳤다.

성호환(95회·편집위원) 교우



1학년 교육 여행



2024년 10월 22일~25일, 본교 1학년 학생들은 베트남과 대만으로 소규모 테마형 교육 여행을 다녀왔다. 코로나의 여파로 2021~22년은 교육 여행이 중단되었었고, 2023~24년 2년은 국내로 교육 여행을 다녀왔었다. 2025년 5년 만에 예전처럼 베트남과 대만으로 교류 학교와 함께 하는 교육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되어 학생들은 들뜬 마음으로 인천공항에 모였다. 베트남에서는 하노이에서 바딘 광장, 호치민 생가 등을 둘러보고 하롱베이를 방문하여 반별 크루즈를 타고 여유 있는 시간을 보냈다. 또한 교류 학교인 주반안고에서는 장기자랑, 축구, 농구 등을 함께 하는 의미 있는 경험을 하였다. 대만에서는 타이베이를 방문하여 101 전망대, 예류 지질공원, 지우편 등을 방문하고 소원을 적은 풍등을 날리는 체험도 했다. 또한 교류 학교인 신죽고에서 열렬한 환대를 받았으며, 그 학교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듣고 도시락을 함께 먹는 등 소중한 추억을 만들었다. 3박 4일 친구들과 함께하는 여행에 학생들은 내내 밝은 표정으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추억을 쌓고 사고 없이 무사히 귀국하였다.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이 12월 4일 온라인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12월 27일 최종합격자 발표를 끝으로 마무리 되었다. 2025학년도 신입생 모집 선발 과정을 통해 명문 사학 중앙고의 확고한 입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일반전형 260명 모집에 총 407명의 학생들이 지원을 해서 1.57: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여 12월 10일(화)에 모교 강당에서 추첨을 통하여 면접 인원을 확정하였다. 이러한 경쟁률은 서울 광역단위 자율형사립고 15개교 중에서 톱5([2025 광역자사고 경쟁률] 서울 15개교 1.13대1 '하락'. 이화여 선녀 중동 배재 중앙 톱5. 베리타스 알파. 2024. 12. 06.)안에 들어가는 높은 선호도이다.

11월 2일과 9일에 진행되었던 학교설명회에서 이미 이러한 관심을 엿볼 수가 있었다. 체육관에서 진행된 학교 설명회에 준비한 800여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학부모님과 학생들이 참석하신 모습에서 중앙고등학교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이번 신입생 모집 과정에서 보여진 모습은 우리 중앙고등학교가 명문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2025학년도 서울 광역단위 자율형사립고 지원 현황

학교	성별	일반전형			사회통합전형			보훈자지녀전형			고인특례대상자전형			체육특기자전형		
		정원	지원자	지원률	정원	지원자	지원률	정원	지원자	지원률	정원	지원자	지원률	정원	지원자	지원률
[자료출처] 2024.12.06. 16:00 기준																
경희고	남	209	0.97	58	25	0.41	8	0	0.00	5	0	0.00	34	11	0.79	
대광고	남	249	1.28	63	17	0.27	9	1	0.11	6	0	0.00	3	2	0.67	
제재고	남	327	5.25	1.61	91	0.5	13	4	0.31	9	11	1.22	37	35	0.95	
보인고	남	330	404	1.22	87	36	0.41	12	2	0.17	8	6	0.75	15	14	0.93
신덕고	남	308	569	1.85	77	69	0.90	11	1	0.09	7	3	0.43	-	-	-
제회고	남	336	376	1.12	84	8	0.10	12	0	0.00	8	4	0.50	-	-	-
세원여고	여	331	420	1.27	84	21	0.25	12	2	0.17	8	2	0.25	5	2	0.40
신일고	남	270	334	1.24	70	42	0.60	10	1	0.10	7	0	0.00	10	14	1.40
양정고	남	318	428	1.35	84	9	0.11	12	2	0.17	8	3	0.38	18	16	0.89
여화여고	여	336	652	1.94	84	79	0.94	12	3	0.25	8	2	0.25	-	-	-
충동고	남	327	581	1.78	87	31	0.36	12	3	0.25	8	8	1.00	18	6	0.33
중앙고	남	260	407	1.57	70	39	0.56	10	2	0.20	7	3	0.43	20	24	1.20
한대부고	남	65	55	0.85	77	35	0.45	11	0	0.00	7	1	0.14	-	-	-
한대부고	여	243	314	1.29	77	35	0.45	11	0	0.00	7	1	0.14	-	-	-
현대고	남	112	128	1.14	84	19	0.23	12	0	0.00	8	3	0.38	-	-	-
현대고	여	224	255	1.14	84	21	0.27	14	2	0.14	9	2	0.22	20	25	1.25
제2고	남	372	294	0.79	98	21	0.21	14	2	0.14	9	2	0.22	-	-	-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축구(또는 토지선발) 지원자는 각 학교 신입생 입학전형 요강에서 확인바람)





중학교

2025학년도 신입생 예비소집

치열한 면접을 통과한 예비 중앙인을 대상으로 25년 1월 2일에 본교 강당에서 예비소집을 실시하였고, 합격한 학생들에게 합격증과 예비소집 책자를 배부하였다. 이 자리에서 2025학년도 신입생 학사일정과 진단고사 관련하여 안내를 하였다. 1월 23일에 실시하는 진단고사를 기초 자료로 기숙사 배정, 장학생 선정 등을 진행하면서 119기 신입생들의 중앙인으로서의 활기찬 생활이 시작될 예정이다.



고려대학교 사범대와 함께하는 주니어 컬리지 캠프

겨울방학 중 대학 강의 체험을 통해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 잠재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주니어 컬리지 캠프(25년 1월 6일)가 진행되었다. 고려대학교 입학사정관의 입시 전략 및 서류 평가와 면접에 관한 특강을 시작으로, 심리학과, 교육학과, 인공 지능학과, 사이버 국방학과의 교수님들이 각 과의 특성에 맞는 전공 강의를 진행해 주셨다. 1학년을 중심으로 총 50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여 자신의 전공에 맞는 대학 수준의 강의를 듣고 진로를 탐색하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중학교 계원장학금 전달

지난 12월 3일 중학교에서는 계원장학회 장학생 10명에 대한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웅원 3명, 용견 4명, 성신 3명의 학생들에게 각 40, 30, 20만원씩 총 300만원을 지급하였다. 선정된 학생들은 학년별로는 1학년 2명, 2학년 3명, 3학년이 5명이었으며 단순히 성적우수자가 아니라 학생회, 동아리, 학급활동 등 학교생활 우수자들로, 중앙학교를 사랑하고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이 선정되어 그 의미를 더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최용석 교장은 계원장학회와 교우회에 대한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앞으로도 모교에 대한 사랑과 지원이 계속 진행되고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협력종합예술활동 발표회

지난 12월 23, 24일 양일에 걸쳐 전학년 협력종합예술활동 발표회가 인촌관 크림슨홀과 강당에서 있었다. 23일 크림슨홀에서는 2학년 학생들이 반별로 준비한 기타합주와 연극공연이 있었고, 24일에는 강당에서 1학년의 반별 합창, 3학년의 반별로 뮤지컬 공연이 있었다. 연극과 뮤지컬의 경우 시나리오 작성부터 의상, 소품, 음향, 조명, 연기 모두 학생들이 각각 역할을 맡아 서로 협력을 통해서 작품을 완성시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동기회 소식

56회 동기회, 가을 소풍과 송년회

56회 동기회에서는 2024년 10월 21일 48명이 철원 주상절리와 비둘기낭을 다녀왔다. 매년 봄가을로 여행을 해 온 56회는 2024년에는 가을 여행만 다녀왔는데, 금년부터는 다시 봄가을로 추진해 보자는 의견이 많아 2025년에는 연 2회 여행을 구상 중이라고 한다.

한편 2024년 12월 11일 군인공제회관에서 56회 동기 62명이 모여 송년회를 가졌다.



58회 동기회, 정기총회 및 송년모임

2024년 12월 18일 오후 6시 왕십리 디노체 컨벤션홀에서 80여명의 동기가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중앙고 58회 정기총회 및 송년모임을 성대히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십수년간 동기회를 위해 헌신한 박하식, 반경선 동기에게 감사장을 수여 하는 등 뜻 깊은 하루를 보냈다. 또한 58동기회 24대 회장은(25년~26년) 동기들의 만장일치로 최경상 현 회장이 연임 되었다.



65회 동기회, 2024년 송년회 가져

1974년 2월에 졸업한 65회는 24년 6월 5일 졸업 50주년 행사를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한데 이어 12월 13일 모교 크림슨홀에서 송년회를 가졌다. 금요일이었으나 마침 재학생들은 기말고사를 끝내고 일찍 하교를 하였기에 학교의 배려로 모교에서 75명의 동기들이 모여 의미 있는 송년회를 가질 수 있었고 임정혁 교우회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이번 송년회 행사에서 1부의 첫 시간에 동기들 중 저명인사 강연을 들을 기회를 가졌다. 이태리 건축학 박사로 잘 알려진 65회 동기 정태남 박사는 '르네상스의 피렌체 산책'을 주제로 심도 있는 피렌체 건축과 르네상스 강의가 있었다. 2부에서는 송장식 동기의 색소폰 연주 속에 맛있는 스테이크 뷔페와 와인을 즐기며 맛있는 식사를 즐겼다. 3부에서는 2024년 결산 보고에 이어 2025년의 동기회 운영 계획을 승인하며 송년회 행사를 마쳤다.



66회 동기회, 송년회 및 졸업 50주년 기념식 및 발대식 소식

66회 동기회(육동회/회장 차진옥)는 2024. 12. 8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국기원 옆 SC컨벤션에서 76명의 동기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및 송년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졸업50주년행사를 주도할 30대 동기회장은 박정관 교수, 수석 부회장은 문하영 교수, 감사는 이석원, 이원식 교수가 선출되었다. 또한 11명 기금관리위원 중 3년 임기가 만료된 최병문, 이호규, 박인태 교수가 재선출되었다. 30대 회장으로 선출된 박정관 교수는 1986년 5월 10일에 개최된 66회동기회 창립총회(초대회장 오연상) 이전부터 약 44년 동안 실질적인 말뚝 총무 역할을 해왔다. 그런데, 2025년 졸업50주년행사도 동기회장이란 중책까지 맡게 되어서 동기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있으며 또한 선배님들과 후배님들의 애정넘치는 관심과 후원도 기대하고 있다.

한편 66회 동기회(신임회장 박정관)는 2025년 1월 10일 모교 강당에서 졸업 50주년 발대식을 개최했다. 1부 행사 시작 전에



참석자들은 각각 재학시절 3학년 교실도 방문했다. 66회 졸업생은 635명이었으므로, 장학금 635만원을 중앙교우회(임정혁 교우회장)에 전달했다. 이날 행사에서 동호회를 중심으로, 매월 크고 작은 졸업50주년 기념행사를 시작하겠다는 선포식(발대식)도 겸했으며 단체 기념사진 촬영과 동호회별 참석자 인증 사진을 찍었다. 체감온도 영하 16도의 한파주의보 속에 참석한 동기들은 비원손칼국수에서 뜨끈뜨끈한 만두 전골과 모듬전에 막걸리 한 사발씩 마시며 50년 우정을 확인했고, 기념 타월도 나눠 가졌으며 3부는 동호회 별로 다양한 뒤풀이를 했다.

이날 1부(80분)와 2부(50분) 행사는 [육동회 공식밴드]에서 생중계를 했으며 자동으로 생성되는 다시보기 동영상에 모든 기록을 저장해 놓았다. 졸업50주년 첫 기념행사는 2월 23일 김치당 구클럽 이수역점에서 개최 예정인 [육동회 오픈 당구챔피언 결정전]이다.



66회 동기회, 산행모임 ‘청파’ 시산제

66회 동기들의 산행모임인 ‘청파’가 25년 1월 12일 아침 청계산 이수봉에서 시산제를 지내고 올해 무사 등반과 건강을 기원했다. 김동윤 청파대장은 축문에서 “올해는 지혜와 변화를 상징하는 ‘청사(靑蛇)’의 해”라며 “을사(乙巳) 새해에 ‘청사’의 힘찬 에너지로 정치 경제 사회적 난국을 이겨내어 우리와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뜻깊은 한 해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고 빌었다. 시산제에는 임정혁 교우회장과 박정관 66회 동기회장, 매봉산장으로 직접 온 이충형 민기식 정원호 이광우 등 모두 23명이 참석했다. 옛길 매봉산장으로 장소를 옮겨 대장 이취임식과 뒤풀이 모임이 이어졌다. 3대인 김동윤이 4대인 손창수에게 바톤을 넘겨주었다. 손 신임 대장은 자신은 30년을 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30년 후이면 대부분의 육동들이 100살이 된다. 정태신 총무는 유임됐다. 지난 주 등반에서 3년 개근상으로 등산화를 받은 하종석은 건배사에서 “청파는 육동들에게 건강과 우정의 베이스”라고 규정했다. 2003년 3월 시작한 청파는 올해로 23년째가 되며 공식적으로 1,184회 등반을 했다. 2024년 산행은 4월 28일 소백산, 11월 3일 덕유산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72회 동기회, 가을 소풍과 뮤지컬 관람

72회 동기회는 24년 10월 12일 30여명의 동기와 가족들이 충남 예산을 다녀왔다. 선선한 가을바람을 맞으며 수덕사와 예산호의 모노레일을 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출렁다리를 걸으며 가을을 만끽하는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다. 또한 작년에 이어 24년 11월에는 대학로에서 뮤지컬 ‘바람으로의 여행’을 동기와 가족 그리고 중앙교우 동문들과 함께 관람하고 식사를 하며 우의를 다졌다.





동기회 소식

75회 동기회, 졸업 40주년 기념식

24년 11월 22일 삼청각 일화당에서 75회 졸업생들이 졸업 4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행사를 가졌다. 약 100여 명의 동기와 선배들이 참석해 학창 시절의 추억을 되새기고, 앞으로의 우정을 다짐하는 이 행사는 이상훈 동기회장의 인사말로 시작되었다. 이 회장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동기들, 그리고 행사를 준비해 준 임원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0년 전 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하며 가졌던 꿈과 희망을 다시금 떠올리며, 앞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는 동기회가 되길 바랍니다”라고 전하며 동기들 간의 끈끈한 유대를 강조했다. 아울러 중앙교우회에 500만 원의 후원금을 전달했다. 후원금은 75회 동기들이 중앙고등학교와 교우회의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마련한 정성이 담겼다. 이상훈 동기회장으로부터 후원금을 전달받은 이서구 중앙교우회 사무총장은 “졸업 4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여러분의 후원이 교우회와 모교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라며 감사와 축하의 뜻을 전했다. 행사의 사회는 ‘6시내고향’ 메인 앵커였던 개그맨 김종하가 맡아 특유의 유쾌한 입담과 노래로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켰다. 화합과 추억의 장으로 만들어 낸 이번 행사에서 75회 동기들은 “이 자리가 앞으로 더 큰 우정과 발전의 발판이 되기를 바란다”며 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했다.

- 후원 / 73회 박기룡 교우 미술 작품 1점(300만원 호가)
- 찬조 / 66회 임정혁 교우회장 100만원, 82회 문지인 교우 100만원(백화점 상품권), 70회 동기회 30만원, 72회 동기회 30만원, 73회 동기회 30만원, 74회 동기회 30만원, 76회 동기회 30만원, 77회 동기회 30만원, 79회 동기회 30만원, 74회 황철이 교우 30만원, 95회 성호환 교우 10만원



79회 동기회, 송년회 개최

79회 동기회(회장 신동원)는 2024년 12월 14일(토) 오후 5시 여의도 ‘은성회관’에서 60명이 참석해서 송년회를 개최했다. 요즘 배가 점점 더 나오는 친구들이 많아져서 행사이벤트로 배 둘레가 큰 친구를 뽑는, ‘배둘레 최고왕’ 뽑기에서 박종x 친구가 우승을 했다. 반대로 ‘최고로 여린 허리왕’ 뽑기에서는 28인치 허리의 유동x 친구가 우승을 했다. 50대 중반에 이 정도 허리를 유지하기가 쉽지 않은데 운동을 참 열심히 한 듯하다. 머리둘레 큰 사람 뽑기, 머릿카락 수가 제일 적은 사람 뽑기 등 다양한 뽑기대회를 하려고 했으나 시간 관계상 다 못하고, 나머지 상품은 추첨으로 골로루나 뉘주면서 아름다운 마무리를 했다. 79회는 졸업40주년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당구, 축구, 등산 등 소모임으로 자주 만나고 있으며 건강하게 오래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86회 동기회, 송년회 개최

86회 동기회(회장 김진수)에서는 24년 12월 21일 돈암동의 아리랑호텔뷔페에서 동기 송년모임을 개최했다. 86회 동기회는 20주년 행사를 기점으로 모임을 결성해 정기 모임을 갖고 있다. 이번 송년회에는 18명이 참석하여 고교 시절의 추억 등을 끽새기며 재미 있는 시간을 보냈다. 25년은 졸업 30주년이 되는 해인데 동기들이 뜰풀뭉쳐 중앙고의 전통을 이을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다짐을 하면서 행사를 마무리 했다.





동기회 소식

95회 동기회, ‘졸업 20주년 기념식 및 사은행사’

24년 11월 30일, 중앙고 95회 동기회는 중앙고 인촌관 2층 크림슨홀에서 ‘졸업 20주년 기념식 및 사은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95회 동기 35명을 포함해 은사님 30분, 그리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후배 20분 등 총 90여 명이 참석해, 학창 시절의 추억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행사 준비를 위해 95회 동기회는 집행부를 조직하고, 여러 차례의 모임과 협의를 통해 동기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특히 95회 내부에서 500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했으며, 선후배들의 따뜻한 후원으로 성공적인 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다. 행사 1부에서는 은사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이어 프로야구 두산의 레전드이자 국내 출신인 김재호가 준비한 야구 사인볼을 참석자들에게 나눠주는 이벤트가 진행되어 더욱 특별한 의미를 더했다. 또한, 중앙교우회 발전기금을 기탁하며 교우 간 나눔과 연대의 가치를 실천했다. 뷔페로 식사를 마친 후 이어진 2부는 사은회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는 일문일답 코너로 꾸며졌다. 이 코너에서는 95회 동기들과 은사님들이 함께 과거의 추억을 나누며 소통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학창 시절에 얹힌 에피소드와 개인적인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모두가 과거로 돌아간 듯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은사님들께서 전하는 진심 어린 격려와 동기들이 나누는 따뜻한 이야기는 참석자 모두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강현민 회장은 “2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동기들과 은사님들이 함께 과거의 추억을 나누는 모습에 가슴이 벅찼다”며, “이번 사은회를 통해 서로 간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고, 동기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앙 선후배님들의 따뜻한 지원과 격려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동기회를 통해 모교와 교우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95회 동기회는 이번 사은회를 계기로 동기 간의 결속을 더욱 단단히 다지며, 중앙교우회와 모교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을 약속했다.

중앙교우회를 비롯해 동기회, 동아리 및 선후배 교우들의 후원금과 찬조 물품에 대해 95회 동기회는 고마움을 표했다.



66회 동기회 중앙육동합창단, ‘제10회 정기연주회’ 성공적 개최



중앙육동합창단(단장 하종석)은 2024년 10월 26일 TLI아트홀에서 제10회 정기연주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지금으로부터 13년 전(2012), “나이 들어가면서 친구들끼리 뭔가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가보자”는 몇몇 친구들의 소박한 생각이 모여서 시작하였고, 12년의 세월을 매월 1, 3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만나서 합창 연습을 하고,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던 기간(3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하였고, 2024년 10월 드디어 열번째 정기연주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그동안 육동합창단은 중앙교우회 행사에서 축가를 연주해왔고, 동기들의 자제들의 혼사에 적극 참석하여 혼례축가를 연주함으로써 혼주 양가의 가족들에게 평생 기억에 남는 멋진 추억을 제공해 왔다.

지휘자를 포함해서 합창단원 전원이 중앙고등학교 66회 동기동창생들로 구성되어 있고(반주자 제외), 지휘자를 제외하고는 전 단원이 비음악전공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야말로 친구가 좋아서, 좋은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노래 부르는 것이 좋아서 시작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 문자 그대로 ‘우정의 합창단’이다. 육동합창단은 4부(테너1, 테너2, 바리톤, 베이스)로 구성되어 있고, 매년 정기연주회 때는 30명 내외의 단원들이 무대에서 합창하며, 그동안 280여회의 합창연습을 진행했고, 100여곡이 넘는 노래를 함께 불렀다. 특히 이번 제10회 정기연주회 때는 처음으로 합창단원들의 어부인들이 함께하는(소프라노 파트 추가) 혼성합창 연주 순서가 있어서 더욱 뜻 깊은 연주회가 되었다. 2025년 가을(2025.10.25.토)에 개최예정인 ‘제11회 정기연주회’부터는 소프라노 파트를 정식으로 추가하여 남녀 혼성 5부합창단으로 연주할 계획이다.

올해 졸업 50주년을 맞이하는 66회 동기생들(육동회원)에게 50년 전 ‘계동 1번지’의 추억은 너무나도 강렬하고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 그 무엇보다 든든한 자산이자 에너지원(源)의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또한 그럴 것이다. 이제 고희(古稀)로 들어가는 66회 동기(육동)들에게는 중앙육동합창단은 더욱 안락하고 편안한 정신적 휴식처가 되어가고 있고 나아가 전체 중앙교우들에게는 중앙의 자랑스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가는 자부심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지부/동아리 소식

KBF(계산비즈니스포럼), 30년 역사 속 새로운 도약의 시작

25년 1월 8일, KBF(계산비즈니스포럼) 제26대 문지인(82회) 회장의 주관으로 역대 회장 초청 간담회가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 '호빈'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행사는 KBF의 30년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초대 회장부터 최근 회장을 역임한 13명의 역대 회장들과 총무단, 문회장을 포함해 총 18명이 참석했다.

문 회장은 "KBF의 30년은 회원들의 헌신과 열정으로 이뤄진 값진 역사"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존경과 섬김'이라는 슬로건 아래 역대 회장님들의 노고를 기리고, KBF의 현재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권대욱(60회) 초대 회장은 KBF의 창립 당시 어려움과 극복 과정을 회상하며 "회원들의 단합이 오늘날 KBF를 만들어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는 역대 회장들의 따뜻한 이야기와 통찰력 있는 제언들로 이어졌다. 이강호(60회) 2대 회장은 중앙의 명성과 전통을 이야기하며 KBF가 자부심의 근간이 되어야 함을 강조했고, 이승훈(61회) 3대 회장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한국인의 DNA와 경험을 공유했다. 서정호(62회) 4대 회장은 행사 준비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더블 매그넘 와인과 연태고량주를 찬조해 간담회의 품격을 더했다. 특히 김양성(69회) 11대 회장은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며, 회원들이 지켜야 할 품격과 KBF의 정체성을 되



인사말하는 문지인 회장

새겼다. 이서구(72회) 22대 회장은 KBF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며 앞으로 다가올 도전과 과제를 극복하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문지인 회장이 준비한 깜짝 케이크와 김양성 회장이 전달한 깜짝 선물이었다. 케이크 커팅과 함께 참석자들은 KBF의 30년을 축하하며 서로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KBF의 30년 역사를 기념하며, 앞으로의 도약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뜻깊은 자리였다. 문 회장은 "회원 여러분과 함께 KBF의 르네상스를 열어가겠다"며 앞으로의 비전을 공유하며 간담회를 마무리했다.

JRC, 송년 모임

24년 12월 6일, 중앙고달리기모임 JRC(회장 75회 유경수)는 노정수(65회) 선배가 운영하는 종각역 종로타워 지하1층 '보들미역'에서 송년 모임을 개최했다. 최고 기수인 56회 최정섭 선배부터 막내 기수인 95회 권영민 후배까지 여러 기수가 송년회 자리를 함께 했다. JRC의 신인 유망주인 중앙교우회의 최서윤 간사도 자리를 함께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최 간사는 이미 10km를 마스터했으며 새해에는 21km 도전을 목표로 열심히 훈련 중이다.

JRC는 한달에 한 번 일요일에 모여 달리기 & 걷기를 한다. 달리기와 걷기를 통해 건강 관리를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은 강기석(82회, 010-6293-998) JRC 총무에게 문의 바란다.



중앙FC, 송년 모임

2024년 12월 14일 중앙FC(회장 68회 변동영) 회원 140명 중 70명이 모여 송년회를 개최했다. 중앙고 인촌관 크림슨홀에서 출장 뷔페식사로 행사 진행을 했는데, 앰프시설도 좋고 아늑한 공간이 참 좋았다. 이날 중앙FC의 송년회는 1년 동안 모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며 쌓아온 우정을 다시 새기며 서로 격려도 하고, 내년에도 부상없이 재미 있게 운동하며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소망을 담았다. 중앙FC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중앙고등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다. 현재 10개 기수가 참여를 하고 있는데, 기수에 축구팀이 없어도 상관없고 혼자 참석해도 무방하니 새해에는 축구를 사랑하는 중앙인의 많은 참석을 희망해 본다.





JRC, 신년회 행사 “순궁으로 연결된 과거와 현재” : JRC 역사와 함께 달리다

2025년 새해를 맞이하여 중앙고 달리기 동호회 JRC는 2025년 1월 12일 일요일에 모교 인촌관 크림슨 홀에서 신년하례와 순궁달리기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신년하례 시주제와 독창적인 의미를 담은 ‘순궁’ 행사를 통해 회원들과 가족들이 함께하는 특별한 자리였다.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느끼며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려는 동호회의 열정과 노력을 보여주었다.

JRC의 새로운 출발 : 함께 달리며 조화와 행복을 추구하다

행사의 시작은 모교 인촌관에서 열린 시주제에서 회원들은 서로의 안전과 건강을 기원하며 한 해 동안의 성공과 조화를 기원했다. 유경수(75회) 회장은 신년 축사를 통해 JRC의 2025년 비전을 “함께 달리며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는 공동체”로 선언했다. 2025년 동호회 활동은 정례화된 프로그램과 흥미로운 내용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동반 성장을 추진하고, 순궁 행사와 같은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순궁(巡宮) : 역사 속을 달리다

‘순궁’은 ‘궁궐을 순례하다’는 의미로, 궁을 순찰하는 행위와 역사적으로 왕이 백성과 소통하며 통치를 상징하는 중요한 의식을 담고 있다. JRC는 ‘순궁’이라는 표현을 독창적으로 처음 사용한 이번 행사는 단순히 달리기만이 아닌, 건강을 추구하며 우리 주변의 역사와 문화를 살펴보고 느껴보는 흥미롭고 특별한 의미를 찾아가는 시간이었다. 참가자들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두 가지 코스를 설계하여 선택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달리기 코스(7~10km)’는 성균관, 창덕궁, 창경궁, 광화문을 지나 경복궁과 청와대의 돌담길을 여유롭게 달리는 코스였다. 이는 단순한 달리기 코스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연결고리가 되었다. ‘천천히 코스(약 3km)’는 문화 공간을 느낄 수 있는 여유로운 걷기 코스로 준비되었으며, 북촌을 시작으로 운현궁과 인사동을 잇는 전통 문화적 명소를 둘러보며 우리 주변의 문화를 느끼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의 JRC : 전통을 품고 미래를 향해

서울의 역사적 중심지에 위치한 중앙고등학교는 JRC가 건강과 문화, 역사를 함께 체험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데 든든한 기반이 되고 있다. 유경수 회장은 “JRC는 단순히 달리기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걷고 달리며 소통하고 이해하며 서로의 건강과 안녕을 최우선으로 하는 커뮤니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순궁 행사’라는 혁신적인 프로그램과 비전을 정비하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JRC는 중앙고라는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건강 증진과 문화 존중을 추구하는 동호회의 모범 사례로 자리 잡아 갈 것입

니다. 언젠가는 순궁 행사가 많은 교우들과 함께 참여하며, 우리 중앙고의 자부심과 함께 우리의 문화와 역사를 걷고 달리며 즐기는 날을 고대해 봅니다.”

유경수(75회, JRC회장) 교우



신년하례 시주제에서 회원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잔을 올리고 있다.



순궁달리기에 앞서 단체사진을 찍는 회원들



경복궁과 청와대 돌담길을 여유롭게 달리고 있는 회원들



언론 속 중앙인

《조선일보》 K방산 신화를 만든 사람들 2024.11.03 / 유지한 기자

김재관(41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초대 원장 그가 없었다면 포철도 없었다 포항제철 기획자 겸 설계자… 반대하는 일본까지 설득해



지난 1979년 2월 22일 고 박정희 대통령이 표준연구소를 방문할 당시 설명을 하고 있는 김재관 박사./김재관 박사 기념관

김재관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초대 원장은 포스코의 역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포항제철을 처음 기획하고 설계한 사람이 김 박사였다. 독일 유학 후 현지 철강소에서 일하던 그는 내내 한국에 종합 제철소를 짓는 문제에 골몰했다. 1964년 독일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과의 만남은 운명적이었다. “하고 싶은 얘기를 해달라”는 박 대통령의 말에 그는 종합 제철소 설립을 제안했고, 귀국 후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소속으로 제철소 종합진 설 계획안 설계를 맡았다. 연간 생산 60만t 규모의 종합 제철소 건설 계획이 진척되지 않은 상황에서 김 원장은 국민소득 증가 추이, 경제적 여건 변화 등 많은 요소를 모두 고려해 복잡한 수식을 풀어낸 결과 오히려 103만t으로 대폭 확장한 설계안을 제시했다. 제철소 건설 지원에 부정적이었던 세계은행과 대일 청구권 자금 전용에 회의적이던 일본이 계획안의 경제·기술적 타당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포항제철의 설립이 시작됐다. 부족한 자본을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기 위해 엄밀하게 계산하고 산출한 것이다. 일본 측 견제가 만만치 않았지만, 기술 협상에서 끈질기게 설득해 최첨단 고로(高爐)를 갖춘 제철소를 세울 수 있었다는 것이다.

제철소에서 나오는 철강은 무기의 재료로 사용되며 자주국방의 초석 같은 역할을 했다. 그뿐 아니다. 미래를 내다본 그의 추진력으로 포항 제철소에서 자동차와 선박용 강판과 후판을 생산할 수 있게 됐고, 이는 1970년대 한국 자동차·조선 산업의 유례없는 성장 토대가 됐다. 경제성장기 산업의 ‘찔’로 불린 철강은 자동차, 중기계, 조선의 재료로 쓰였고, 이는 중화학 공업의 비약적 발전으로 이어졌다. 철강 전문 분석기관인 ‘월드 스틸 라이내믹스(WSD)’ 조사에서 포스코는 올해로 14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철강사로 선정됐다. 명실상부한 글로벌 최상위 기업으로 성장한 것이다. 김재관 원장이 포스코의 산파(產婆)와 다름없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The Korea Times』 National 2025-01-16 By Kwak Yeon-soo

ILEF Foundation CEO Kim Koo aims to bridge US-Korea relations



Kim Koo, chairman and CEO of the International Leaders Empower Federation (ILEF) Foundation, poses at an inauguration ceremony for the Super PAC in New Jersey, Sept. 28, 2023. Courtesy of Kim Koo

Kim Koo, chairman and CEO of the International Leaders Empower Federation (ILEF) Foundation, advised Korean companies to establish and strengthen relationships with members of the U.S. Congress in districts or states in which they operate to ensure the stability of business activities in the United States. He established the foundation in New Jersey in 2003 to amplify the Korean American political voice, nurture the next generation of leaders from ethnic minority groups and support their integration into mainstream American society. It later became a nonprofit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

“Korean companies often hire lobbying firms, public relations agencies or think tanks after the election results to increase their outreach to the U.S. But these efforts are not sustainable. It’s difficult to form and build a long-term relationship with the U.S. administration’s Cabinet because they would be in high demand by the time a new U.S. president is elected,” Kim said in a recent interview with The Korea Times. He said creating a Super PAC (political action committee) or making donations, even a small sum of money, to members of Congress in districts or states could be effective in navigating the complex U.S. political landscape.

Kim said he became the first Korean to establish a Super PAC in the U.S. in September 2023. A Super PAC in



the U.S. is an organization that can freely collect and use funds for election-related political activities.

H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Super PACs in the U.S., saying that Korean companies need to seek preemptive measures to fund political activities to realize sustainable management in the U.S.

Kim also stress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and companies should look beyond Donald Trump and start investing in the so-called "Make America Great Again" kids. "We need to keep in mind who could potentially replace Trump in the next election. They include Marco Rubio, Donald Trump Jr., Elon Musk and JD Vance," he said.

The CEO, who is attending Trump's inauguration on Jan. 20, said he aims to serve as a "bridge between Korea and the U.S."

"When we say ROK-U.S. alliance, we tend to focus heavily on military and security terms. But soft power can have a significant impact in shaping state policies and actions. The ILEF is focused on embracing Korean American identity and strengthening community engagement through cultural education," he said.

Kim said the government needs to implement a comprehensive strategy in seeking closer ties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Now that we are dealing with a leadership void, the government needs to seek 1.5 track talks with the Trump administration and coordinate with the private sector, including conglomerates, research institutes and law firms," he added.

.....

김구(72회) 교우가 25년 1월 20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에 공식 초청을 받았다. 김 교우는 ILEF(International Law Enforcement Federation) 재단 이사장으로, 한미 동맹 강화와 한인 사회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활발히 활동 중이다. ILEF는 미국 내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 이슈를 다루기 위해 지난 2003년 뉴저지주에서 시작했다. 2011년 UN NGO로 인정받아, 한인 및 소수계 커뮤니티의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김 교우는 뉴욕한인경제 인협회 자문위원을 지냈고 ROTC 육군 대위로 근무했으며 국정원에서 30여 년 근무했다. 외교 안보와 경제, 사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재외동포 사회를 연결하는 외교적 가교 역할을 해오고 있다. 김 교우는 현재, SK해운 고문, 한온시스템 사외이사, 포스코인터내셔널 고문, 권팀코리아 대표, 전북대 특임교수로도 활동 중이다.

《합천신문》 2024.12.19

이대만(중 73회) 서울예술학원 이사장, ‘위대한국민대상’ 수상



모친 윤봉자 여사(우) 표창 후 이대만 이사장과 함께

2024년 11월 29일 오후 2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소재 K-아트홀에서 (사)한국바른언론인연합회가 주최하고 정경미디어그룹·시사월간 정경뉴스가 주관하는 제6회 ‘대한민국위대한국민대상’ 시상식에서 합천출신 이대만 박사(1966년생)가 『대한민국 위대한 국민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윤봉자 여사(이대만 이사장 모친)도 남편인 故 이대봉 참빛 회장과 한평생 고락을 함께하며 남편을 성심껏 모신 내조의 여왕으로 사회의 귀감이 되어 표창장을 함께 수상했다.

이대만 학교법인 서울예술학원 이사장은 (주)참빛그룹 창업자 고 이대봉 회장의 유일한 아들로서 30여 년간 참빛그룹 본사에서 근무하면서 부친으로부터 후계자 수업을 통해서 2세 경영인으로 참빛그룹을 국내외 23개 계열사를 가진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 견인하여 71년 전통의 서울예술고등학교를 한국예술계의 요람으로 키웠으며, 국내외에서 호평받는 소프라노 임선혜, 피아니스트 조성진, 임윤찬 등 세계 유수의 음악경연대회에서 입상한 뛰어난 예술인재들을 다수 배출하였다.

이 이사장은 뉴욕대학교 경영교육대학원에서 박사 취득 후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원주도시가스를 인수해 어려운 민원과 재정부채를 해결하여 보다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이루어냈다. 또한 참빛그룹 해외 건설 프로젝트에서도 최대 규모의 아름다운 골프장으로 2012년 기네스북에 등재된 54홀 베트남 하노이 휴닉스 골프 리조트와 베트남 최대의 금장식 호텔로 5성++등급을 획득한 그랜드프라자하노이 호텔 건설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 이사장은 2023년에도 연세대 『MBA 경영자 대상』을 수상했다. 이대만 이사장은 내실있고 만족도 높은 예술학교 교육 및 경영뿐 아니라 참빛그룹의 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낸 중견 기업인으로서 21세기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하고 있는 합천이 배출한 유망한 기업인이다. / 류재권 기자



교우 소식

임창식(55회) 교우, ‘제16회 사이버 영토 수호 마라톤 대회’, 최고령 참가자 ‘특별상 수상’



특별상을 수상한 JRC 임창식 교우

24년 10월 5일, 서울 올림픽공원 평화의 광장에서 열린 ‘제16회 사이버 영토 수호 마라톤 대회’에서 임창식 교우가 최고령 참가자로 특별상을 수상했다. 임 교우는 중앙교우회의 대표 마라톤 동아리 JRC(중앙 런너스 클럽) 소속으로 꾸준히 활동하며 체력과 건강을 유지해왔고, 이번 대회에서도 풀코스를 완주하며 참가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임 교우는 대회 후 소감을 통해 “마라톤은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도전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중앙고 후배들에게 열정과 꾸준함의 중요성을 알리고 싶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80세라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며, 꾸준한 자기관리와 목표를 향한 노력만 있다면 어떤 도전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마라톤 대회는 임교우의 활약뿐 아니라 중앙고 동문 간의 끈끈한 유대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행사에 참석한 교우들은 “선배님의 도전 정신은 우리에게 큰 자극이 된다. 후배들에게도 마라톤을 통해 자신을 단련하고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을 모았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도 다수의 JRC 회원들이 함께하였으며, JRC는 매년 다양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여 중앙고 교우들간 단합을 도모하고 있다. 마라톤이 단순한 스포츠를 넘어 동문 간의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임 교우는 이번 특별상을 계기로 더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의 도전은 중앙교우들에게 귀감이 되는 동시에, 건강한 삶과 열정적인 도전의 가치를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김창완(62회) 교우, 보관문화훈장 수훈

24년 10월 31일 가수 김창완이 대중문화예술분야 최고 권위의 정부 포상인 ‘2024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에서 보관문화훈장을 수훈했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 기획된 시상식은 무대에 오른 김창완은 ”참 기쁘다. 제가 산울림 형제 말형이라 대신 상을 받는다고 생각한다. 하늘에 있는 막내와 아직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는 저희 둘째에게 모든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마땅 한 구석 텃밭 같은 삶을 50년이나 가꾸고 아껴주셔서 이렇게 울창한 노래 숲이 되게 해주신 팬들에게 감사하다. 저의 내일은 김창완 밴드 식구들에게 맡기겠다. 늘 가까이서 노래하는 가수가 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로 15회를 맞이한 대중문화예술상은 가수, 배우, 희극인, 성우 등 대중문화예술인은 물론 방송작가, 연출가, 제작자 등 대중문화산업 종사자의 노력과 성과를 격려하고, 대중문화예술인들의 사회적 위상과 창작 의욕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상이다.



김창완 교우가 리더로 활약한 산울림은 1977년 1집을 시작으로 모두 13집의 음반을 냈다. 2008년부터 김창완 밴드로 활동하며 세 번의 정규 앨범(EP)을 발매했으며 동화작가와 연기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기획 연재 / 김영철의 '중앙 출신 문인 탐방' #19

김영철(60회·건국대 국문과 명예교수, 문학평론가) 교우의 '중앙 출신 문인 탐방#19'에서는 한국방송작가의 선도자였던 김기팔(49회, 본명 김용남) 선생의 생애와 업적에 대해서 알아본다.

'정계야화'의 방송작가 대부, 김기팔



동아방송 라디오 프로그램〈정계야화〉집필 당시의 김기팔(사진 중앙)



김 기 팔

1980년 방송기 혁신상을 당선
김기팔은 1980년 4월 6일 서울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김기팔(1937-1991)은 '연속극 제조기'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한국 방송작가의 선도자였다. 〈정계야화〉, 〈제1 공화국〉, 〈해바라기 가족〉, 〈공부 갑부 김갑순〉 등 이름만 들어도 김기팔의 이름은 쉽게 떠 오른다. 1960-70년대 TV 드라마, 라디오 드라마를 휩쓴 주인공이 바로 김기팔인 것이다. 그를 빼놓고 한국 드라마의 역사를 생각할 수가 없다. 그 만큼 그는 한국 드라마의 지평을 열고 새 역사를 써 간 드라마의 대부요, 산파였던 것이다.

평남 평강에서 태어난 그는 중앙고를 졸업하고(49회) 서울대 철학과로 진학한다. 본명은 김용남이다. 지병으로 54세로 요절했다. 철학과 2학년 재학 중 한국일보와 국립극장이 공모한 현상모집에 〈중성도시〉(1959)가 당선되어 극작가로 데뷔한다. 다음 해에 KBS 연속극 100만원 현상모집에 〈해바라기 가족〉이 당선되어 본격적인 극작가로서의 명성을 떨치기 시작했다. 〈해바라기 가족〉은 축첩에 따른 가정파탄을 그려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가 방송작가로서 문명(文名)을 떨치게

된 것은 DBS(동아방송)의 〈정계야화〉부터이다. 6·25 전쟁 후 정쟁(政爭) 시대로 접어든 정치현장을 리얼한 시각으로 파헤쳤던 것이다. 당시 장안의 화제가 됐던 김창룡 암살 사건, 장면 부통령 저격사건 등 민감한 문제를 생생하게 증언한 드라마였다. 1970.10-1973.1월까지 818회로 2년 넘게 방송된 화제의 드라마였다. 삼엄한 군부시절에 민감한 정치현실을 다룬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아니나 다를까 2번이나 방송심위에 걸려 중단되기도 했다. 그 만큼 민감한 문제였으나 역사를 증언하고 복구한다는 투철한 작가정신으로 버텨냈던 것이다. 1970년대를 살 사람 치고 〈정계야화〉를 안 들어 본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의 드라마의 특징은 풍부한 자료와 문헌을 바탕으로 사실성과 정확성을 추구하는 데 있다. 말하자면 거의 실화에 가까운 다큐멘터리였던 것이다. 드라마로 되 가급적 허구성을 배제하고 사실성을 바탕으로 역사를 재구(再構)하는 데 힘썼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는 리얼리즘 다큐작가로 평가할 수 있다. 드라마 작가이자, 역사가였던 것이다. 이러

한 대중들의 관심에 보답하려고 〈제1 공화국〉(1981), 〈제2 공화국〉(1989) 등을 MBC TV 연속극으로 내 놓는다. 라디오 방송에서 TV 드라마로 영역을 넓혔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김기팔은 정치 드라마의 선구자요, 선각자로서의 입지를 굳힌다. 나아가 경제 드라마 〈거부실록〉, 〈공주 갑부 김갑순〉, 〈야망의 25시〉, 〈욕망의 눈〉을 발표한다. 가족 사회 드라마로는 〈억새풀〉, 〈아버지와 아들〉, 역사 드라마 〈개화백경〉(KBS)도 있다. 해외로까지 관심을 돌려 멕시코 이민의 애환을 그린 〈유카탄 아리랑〉(DBS, 1969)도 발표했다. 명실공히 전천후 방송작가가 된 셈이다. 〈정계야화〉는 후에 책으로 출판되었다. 이러한 공적을 인정받아 '한국방송대상' (1981), '한국연극영화예술상'(1983), '한국방송공로대상'(1992), '백상예술대상'(1992)을 수상하였고, '방송인 명예인 전당'에 현정되었다.

김기팔의 방송작가로서의 능력은 이미 중앙고 시절부터 짹트기 시작했다. 문예반장으로 다양한 작품을 쓰던 그는 〈계우〉, 〈계원순보〉 편집장을 맡으면서 저널리스트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특히 〈계우〉 33호는 내용이 기성 전문잡지를 능가할 정도로 우수한 글로 가득 차 장안의 화제가 될 정도였다. '한국 사학의 제문제', '농촌운동소고' 등 사회성 짙은 문제들을 다룬 것이다. 연속극 제조기, 정치 다큐의 대부로서의 면모는 이미 계산동산에서 발아(發芽)되고 있었던 것이다.❶



서예가 오현(梧軒) 이곤(42회) 교우를 追悼하며



서예가 오현 이곤 교우가 2024년 11월 17일 향년 94세로 타계 하셨습니다.

창씨개명을 반대하여 투옥되었던 아버지 이두열(건국훈장 애족장), 3·1운동으로 투옥되었던 어머니 김영순(건국훈장 애족장)의 아들이었던 이곤 교우는 이러한 이유로 고향에서 상급학교 진학이 가로막히자, 서울의 인촌 선생에 의해 중앙학교에 입학합니다. 1930년 생인 이 교우는 중앙 졸업 후 공사2기로 진학하였고, 2016년 자랑스러운 공사인에 선정됩니다. 파일럿으로서 미국으로 교육 파견을 다녀오기도 했고, 국군병원에서 수술 실패로 파일럿을 그만두는 불운도 겪으면서, 5·16 군사혁명 당시 공군을 대표하여 활동한 이야기 등 여러 일화가 있습니다.

한학자이신 아버지의 영향을 받은 이곤 교우는 한자로 된 颜真卿(안진경) 체를 처음부터 공부하고 주로 쓰셨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씨는 한글이므로 한글의 발전을 위해 (사)한국서학회를 만드

는 등 심혈을 기울이셨습니다. 대표적인 업적으로 『서예로 담아낸 아리랑 일만



붓글씨 수업을 위해 교우회 사무실에 모인 교우들. 왼쪽 앞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곤(42회), 백순지(54회), 이태형(54회), 최홍균(54회), 서정원(65회), 손창수(66회), 이인혁(44회) 교우

수』(총 6권, 2016)를 들 수 있겠습니다.

중앙교우들과는 2015년 6월 붓글씨 수업이 시작됩니다. 교우회 사무처에서 화요일 저녁에 모여 이곤 교우의 지도를 받은 분들은 이인혁(44회), 백순지(54회), 이태형(54회), 최홍균(54회), 서정원(65회), 손창수(66회) 교우 등입니다. 이듬해 초 玄素會(현소회)라는 이름을 짓고, 2020년 2월 코로나 사태로 중단될 때까지 수업은 계속되었습니다. 이곤 교우의 지도 하에 〈대한민국서예문인화대전〉, 〈국제난정필회 경주전〉 등에 작품을 출품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書藝(서예), 중국은 書法(서법), 일본은 書道(서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사용할 용어로 어느 원로가 '서예'를 제시했을 당시 이곤 교우는 반대하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藝가 '재주 예'를 뜻하기 때문이며, 앞으로 언젠가는 바꿔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글의 대표적인 서체인 宮體(궁체)라는 용어도 바꿔어야 한다고 합니다. 누구의 서체인지도 모르고 궁에서 썼다는 것만으로 궁체라고 부르는 것은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글을 붓으로 쓸 때 획이 단순하다는 점,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이어쓸 때 한글에는 세로 획이 많아 눈에 띄고 변화를 주기 어렵다는 점 등 여러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고민을 많이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이 자주 찾는 청계산 매봉에 가면 이곤 교우의 글이 새겨진 비석을 볼 수 있습니다. 중앙학교에는 이 교우의 여러 글이 새겨져 있고, 써어 있

기도 합니다. 제 사무실에도 이 교우의 글이 걸려 있어 자주 지난 일을 회상해 봅니다.

이곤 교우는 2008년 제21회 '자랑스러운 중앙인'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손창수(66회) 교우





誌告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본인·부인상

- ▲ 이곤(42회·서예가) 교우 본인상 / 24년 12월 17일 卒
- ▲ 이준상(52회) 교우 본인상 / 발인 25년 1월 7일
- ▲ 박준우(중59회) 교우 본인상 / 발인 24년 12월 14일
- ▲ 배진구(64회) 교우 본인상 / 발인 24년 11월 30일
- ▲ 박일근(72회) 교우 본인상 / 발인 24년 10월 15일
- ▲ 양선비(93회) 교우 본인상 / 발인 24년 11월 20일
- ▲ 노순원(전 중앙중학교 교사) 님 본인상 / 발인 24년 12월 6일

부친·모친상

- ▲ 정병재(69회) 교우 모친상 / 발인 24년 11월 4일
- ▲ 김종환(70회) 교우 모친상 / 발인 24년 11월 10일
- ▲ 하준범(70회) 교우 모친상 / 발인 24년 11월 29일
- ▲ 이안성(71회) 교우 모친상 / 발인 24년 10월 24일
- ▲ 신종섭(74회) 교우 부친상 / 발인 24년 11월 16일
- ▲ 이필선(74회) 교우 부친상 / 발인 24년 11월 21일
- ▲ 윤해용(74회) 교우 모친상 / 발인 24년 12월 3일

- ▲ 김기덕(74회) 교우 모친상 / 발인 24년 12월 26일
- ▲ 신용식(75회) 교우 부친상 / 발인 24년 11월 18일
- ▲ 이원구(75회) 교우 모친상 / 발인 25년 1월 9일
- ▲ 홍성호(76회) 교우 모친상 / 발인 24년 11월 12일
- ▲ 윤현(76회) 교우 부친상 / 발인 25년 1월 1일
- ▲ 신보영(76회) 교우 부친상 / 발인 25년 1월 7일
- ▲ 한인수(76회) 교우 모친상 / 발인 25년 1월 11일
- ▲ 노기룡(76회) 교우 모친상 / 발인 25년 1월 11일
- ▲ 정상희(77회) 교우 모친상 / 발인 24년 11월 26일
- ▲ 현동호(77회) 교우 부친상 / 발인 25년 1월 13일
- ▲ 임두기(78회) 교우 부친상 / 발인 24년 10월 19일
- ▲ 유종(78회) 교우 모친상 / 발인 25년 1월 17일
- ▲ 마성봉(79회) 교우 모친상 / 발인 24년 10월 31일
- ▲ 박병춘(81회) 교우 모친상 / 발인 24년 11월 18일
- ▲ 정지만(81회) 교우 부친상 / 발인 25년 1월 13일
- ▲ 이재호(83회) 교우 부친상 / 발인 24년 11월 21일
- ▲ 이원희(85회) 교우 모친상 / 발인 25년 1월 22일
- ▲ 박상언(87회) 교우 부친상 / 발인 24년 11월 12일

- ▲ 강태윤(88회) 교우 부친상 / 발인 24년 11월 15일
- ▲ 유민규(92회), 유민우(95회) 교우 부친상 / 발인 24년 11월 5일

빙부·빙모상

- ▲ 한원보(65회) 교우 빙모상 / 발인 24년 10월 29일
- ▲ 김일(70회) 교우 빙부상 / 발인 24년 12월 13일
- ▲ 조용원(70회) 교우 빙모상 / 발인 24년 10월 25일
- ▲ 이준배(73회) 교우 빙부상 / 발인 24년 11월 9일
- ▲ 남정현(74회) 교우 빙모상 / 발인 24년 10월 25일
- ▲ 흥유석(74회) 교우 빙모상 / 발인 24년 11월 16일
- ▲ 김기덕(74회) 교우 빙모상 / 발인 24년 12월 18일
- ▲ 이규석(75회) 교우 빙모상 / 발인 24년 11월 25일
- ▲ 박종석(76회) 교우 빙부상 / 발인 25년 1월 26일
- ▲ 윤종수(78회) 교우 빙부상 / 발인 24년 12월 31일
- ▲ 고상원(78회) 교우 빙부상 / 25년 1월 22일 卒
- ▲ 조성용(81회) 교우 빙부상 / 발인 25년 15월 12일
- ▲ 이일구(88회) 교우 빙부상 / 발인 24년 11월 17일

경조사를 실어 드립니다.

계우회보는 교우들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경조사를 지면에 실어드립니다.

축하합니다



- ▲ 김경탁(70회) 교우 / 子 지현 군 결혼 24년 11월 17일
- ▲ 최광식(70회) 교우 / 子 병국 군 결혼 24년 11월 23일
- ▲ 이재학(70회) 교우 / 子 병국 군 결혼 24년 12월 21일
- ▲ 김민연(70회) 교우 / 女 보원 양 결혼 24년 12월 21일
- ▲ 김창환(70회) 교우 / 女 윤경 양 결혼 24년 12월 28일
- ▲ 박계서(70회) 교우 / 子 광영 군 결혼 25년 1월 18일
- ▲ 김상모(70회) 교우 / 女 수은 양 결혼 25년 2월 8일
- ▲ 조중희(70회) 교우 / 子 윤상 군 결혼 25년 2월 16일
- ▲ 김재원(72회) 교우 / 女 은정 양 결혼 25년 1월 21일
- ▲ 권영배(74회) 교우 / 女 지윤 양 결혼 24년 11월 3일
- ▲ 흥현덕(74회) 교우 / 女 지나 양 결혼 24년 12월 7일
- ▲ 송은상(78회) 교우 / 子 지호 군 결혼 24년 12월 14일



2024년 교우회비 납입 현황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 명예회장(50만원)

63회 박찬종

■ 고문(50만원)

58회 안종만 58회 한형석 60회 권대욱
60회 조현익 61회 윤용식 62회 김민식
62회 김종수 62회 조대룡 65회 박명규
65회 한근태 66회 안양호 66회 이재영B
75회 이주일

■ 운영부회장(100만원)

60회 신희순 66회 송규현 66회 김규명
66회 손창수 66회 김규명 66회 김기수
66회 김영진A 67회 김만수 68회 강신장
68회 김영준 70회 정상혁 70회 김용기
71회 김재호 71회 이호성B 72회 이서구
72회 김현식 72회 김영철B 73회 김해덕

■ 부회장(50만원)

61회 이덕건 62회 서정권 62회 흥대식
63회 조청원 64회 신병준 65회 이호채
65회 서정원(100) 65회 안성호
65회 오명철 65회 한원보 65회 임경식
65회 장 옥 65회 장해철 66회 권운영
66회 박정관 66회 김희호 66회 임한택
66회 최병문 67회 조소현 68회 공영삼
68회 김재영 68회 김재영 68회 우윤명
68회 윤동범 69회 김동섭 69회 김범수
69회 서정섭 69회 강승백 70회 강수석
70회 류영재 70회 이승제 71회 민경선
71회 박광용 71회 한재명 73회 김향태
73회 안기동 73회 임경화 73회 최길호
78회 박원수 80회 김승모

■ 상임이사(30만원)

60회 추병옥 60회 김철호 60회 정진석
61회 진종후 61회 진태훈 62회 양계동
62회 임성열 62회 주세환 63회 전동석
63회 정자섭 63회 최환석 65회 박중흠
65회 윤기종 66회 백선기 66회 이희세
68회 육광익 68회 변동영 69회 김세웅
69회 이정복 69회 김주선 69회 박현철
69회 최규동 70회 김영철 70회 김종원
70회 유종득 71회 김원준 71회 이민걸
72회 김구 72회 김준식 72회 이명희

72회 이승범 72회 정호철 72회 박기훈

72회 박한준 73회 김홍기 73회 김한상
73회 권영철 73회 황태운 74회 곽지훈
74회 김의진 74회 이주환 74회 이상규A
74회 이재룡 74회 정연석 74회 송정훈
74회 황철이 75회 김종학 75신용식
75회 이상훈B 75회 조윤성 77회 하영환
78회 고철희 78회 박상규 80회 박상은
81회 김정호 81회 김수걸 81회 김진석
82회 김희수 82회 문지연 82회 한강희
83회 김문규A 89회 이현수A
91회 김현광 91회 유재민

■ 일반회비(4만원, 기타금액은 별도 표시)

42회 이부영(8)
45회 차상필
46회 김한곤 박인무
47회 고봉선 임학빈 정검식
48회 김연종 은승기 진자선 홍순직
49회 김종배 남대우 신동원 이동식(20)
 이영극 이종화
50회 김정의 박수배 이아섭
51회 김명진 김승옥 김평삼 박종영 방한우
 배운덕(8) 서원대 오병우 유병억 임부원
 최준린 황장곤
52회 강교석 노환영(5) 방한용 이상태
 이준상(5) 정인재 정인재 조동민 조삼현
53회 김동기 김정건 김하삼 박영길 윤영규
 이기역 이병철 천영
54회 강희좌 김세웅 김창섭 이승구 이희영
 정도경 황영학 황종이
55회 김영봉 김흔 남기영 민병철 민병철
 박영복 이양기 이종민 이철구 지준홍
 천춘근 최혁 현병철
56회 변원석 윤시탁 이동현(10) 이창우
 정기철 정수진 정태봉
57회 김진성 신동훈 장희수(10) 전세종
 조철행
58회 강병우 계영환 김민현 김성우 김재철
 김지홍 김진석(10) 김태일 서의동
 선완기 송간진 원종화 이상일 최수철
 홍정우
59회 김영석 문만종 유종식(20) 육광열
 이두형 이정복 임봉석
60회 고영준 김계용 김상인 김석규 김성윤

김성윤 김순길 김영철 김인영 김일중

김호권 남상태 박승우 백대일 손성근
송종영 신승엽 심재룡 심향빈 양현근
오승환 윤영 윤영 윤정원 이강호 이동형
이병환 이세영 이종훈 이찬복 이태희A
이해영 장의순 전의수 정경윤 정진석
최재관 한인환 함창용 흥호식 황국성
61회 김영환 김종훈 손희수 양일용 윤상화
 이수호(10) 이승훈 임옥빈 최완진
 황성호(8)
62회 강상배 강창석 강태준 권순집 권해도
 김기수 김동국 김명학 김민식 김석규
 김성재 김승원 김신봉 김영석 김옥환
 김완식 김인호 김장흡 김재준 김정관
 김태영 김한수 남경희 남규상 남성희
 남풍식 문만종 문찬용 박경남 박경원
 박동훈 박병성 박상식 박찬복
 박태섭(48) 박한익 박흥식 방낙준
 배갑주 백사훈 백창일 백형선 서정권
 서정호 송재일 송지영 신무순 신수재
 양봉진 양우종 양의승 염해영 오종윤
 왕영철 유현영 유종식 육광열 윤범식
 윤철호(10) 윤태열 은철기 이갑우
 이규석 이금배 이두형 이병찬 이영길
 이인섭 이일병 이재성 이정로 이정복
 이종빈 이풍희 이희종 임봉석 임성열
 장명국 전장원 정준기 정호길 조성학
 조임래 조향범 주세환 최광식(10)
 최능하 최덕용 최동훈A 최동훈B
 최승진 최인규 최재성 최주용 한기철
 함상만 흥대식 황규철
63회 김우겸 김운묵 명지성 박승호
 송병덕(12) 신용삼 이원종 이한진
 이한진 임현 임현주 정동수 정희진
64회 구재웅 김영진 김영철 김 윤 박상철
 박전한 송영경 신계철 신원형 신현철
 이경호 이규석 이동훈 임윤식 정경영
 조영호 한충섭
65회 김광목 고창업 김정우 김신욱 김현
 남호 민용기 박종원 박주현 빈성건
 이종강 임명철 주광명 황규천 환원제
66회 공인표 권은영 금동수 김동수A 김동윤
 김상균 김상호 김영립 김영립 김영진A
 김윤기 문하영 민병규 박갑성 박동영
 박양원(14) 박용대 박인태 박찬규
 박희경 방순영 배용한 신용섭 양우익
 양우익 오낙환 우제면 유범상 유부일
 이길희 이상현 이석원 이성구 이성원
 이성종 이승철 이재연 이재영A 이정면

이준순 이호규 이희세 임문혁 장영춘

전성업 정상훈 정원진 조희연 조희재
주천기 최병완 최윤호 최종현 최정환
최대호 하병권 하재주 하종석 한명식
한진수 한현 황종석
67회 고정석 길현창 김광수 김만수 김병호
 김용숙 노인호 우건조 황희창
68회 곽지환 김희 남학영 박계선 신재호
 이석호 이황연 전상배 정연천
69회 김범수 김양성 김주혁 손성호 유인한
 유인한 이종환 정기화 주완기 최성호
70회 권혁재 김동호 김삼중 김태희 김호성
 성경호 송언호 유효종 이병구A 장태영
 허양
71회 구본경 김두영 김영언 김학민 김현곤
 박돈식 박봉철 박상호 이근우 이민걸
 이재원 이정원 정우동 정우철(8) 정인구
 정해영 최성호 황규철
72회 김정성 김준식 박정수 박종식 박진복
 박태경 박한준 심대보 안우상 염동선
 유병덕 유창달 이봉남 이종학 전문배
 조찬현 조현준 지재경 최동섭 최동섭
73회 김민기 김진규 김창수 서영훈 손진규
 이건주 이상균B 이상운 이준배
 최길호 최성수
74회 김재명 송정훈 윤기완 윤준희
 정규태 최종윤
75회 김기윤 김재균 김종학 유동재
76회 김영석 경원수 이선희
77회 김태한 박병삼 진영우
78회 강동현 강승국 고철희 권숙현 권준범
 김민철 김석우 김성종A 김준태
 문석호 박상규 박상진 박세원 박완수
 박정운 박진우 박형호 백귀중 백종현
 송제현 신승목 유동훈 유재만 유재원
 윤종수 이광열 이영준 이준성 임준영
 전영길 최광준 최병진 최원규 한도일
 허준구 흥용훈
79회 소을섭
80회 신형상
81회 김수걸(5) 김승진 목성호 목성호
 이영
82회 김형용 김희수 문정대 문지인
 박영주 안인광 엄영흠 이무연 이석희
 정재환 한강희 한제욱
83회 김충식 이명철
85회 이원희 황교찬 황준태(8)
86회 김방현 김진수A 김차곤 문부건
 안병훈 유승영 이동진



교우회비는 모교 사랑입니다

교우회비는 <계우회보> 발간, 교우회 홈페이지 운영, 교우 행사 진행, 모금 지원, 사무처 운영 및 기타 사업비로 쓰입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정성어린 협조와 참여를 기다립니다.

■ 교우회비의 구분

- | | |
|--------------|---------|
| ▲ 일반 연회비 | 연 4만원 |
| ▲ 상임이사 회비 | 연 30만원 |
| ▲ 자문위원 회비 | 연 20만원 |
| ▲ 고문, 부회장 회비 | 연 50만원 |
| ▲ 운영부회장 회비 | 연 100만원 |
| ▲ 기별 회비 | 연 40만원 |

■ 교우회비를 내시는 방법

- ▲ **지로 입금** = 보내드리는 지로 용지나
은행에 비치되어 있는 지로 통지서의 모
든 면(고객용 수납은행명 금융결제원용)
에 이름과 출입회수 연락처 주소 등을 적
어 납입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입금 = 은행 무통장입금 신청

- 하시면 됩니다.

▲ 카드 결제 = 인터넷

www.gyewoo.org
(교우회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해 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교우회 발전기금

계원장학회 기금

중앙축구 후원금

죽양야구 훈워금도 많은 기탁 바랍니다

하나은행 203 - 890161 - 21805
예금주 : 주안그오히

※ 입금시 이름과 졸업기수를 기재해 주세요
(예 : 키드20)



중앙교우회 10년간 수지계산서 및 일반 회비 납부자 수를 공개합니다 교우들의 적극적인 회비 납부를 부탁드립니다

10년간 수지계산서 및 회비납부현황을 아래 <표>와 같이 첨부합니다. 현황을 보면 지난 10년동안 교우회비를 납부하신 교우들은 크게 변화가 없습니다. 물가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교우회의 지출 요인도 증가하고 있지만 교우회에서는 그동안 회비를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부터 교우회장회비는 300만원, 상임이사회비는 30만원으로 인상했습니다. 기존 일반회비는 4만원을 유지합니다. 지속가능하고 발전적으로 교우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교우님들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합니다.

교우님들의 적극적인 회비납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24 중앙교우회 운영기금 수지 계산서

수입		지출	
교우회비	93,190,000	인건비	65,130,240
교우회장	2,000,000	운영비	65,914,903
명예회장	500,000	대여 및 지원비	44,187,000
고문	5,900,000	잡손실	4,461,188
운영부회장	18,000,000	행사비	104,161,870
부회장	19,960,000	지출합계	289,855,201
상임이사	17,820,000		
일반회비	24,110,000		
기회비	4,900,000		
발전기금	77,967,000		
참가비	31,120,000		
잡수입	41,064,217		
수입합계	243,341,217	수입-지출	-46,513,984

중앙교우회 10년간 수지계산서 및 일반 회비 납부자 수(2015~2024)

항목 /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I. 수입	115,417,592	209,927,582	210,203,662	721,026,418	254,078,879
II. 지출	126,251,618	189,619,515	225,944,459	217,453,258	818,409,668
III. 당기손익 (I-II)	- 10,834,026	20,308,067	- 15,740,797	503,573,160	- 564,330,789
일반회비 납부자 (명)	456	529	525	474	494
항목 /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I. 수입	152,516,824	152,734,103	204,151,319	204,475,122	243,341,217
II. 지출	188,993,773	178,969,091	1,347,828,925	349,184,487	289,855,201
III. 당기손익 (I-II)	- 36,476,949	- 26,234,988	-1,143,677,606	- 144,709,365	- 46,513,984
일반회비 납부자 (명)	548	613	584	566	578

10년간 수지계산서를 통해 중앙교우회의 재무상태를 파악하고, 재정 확충을 하는데 참고 자료로 사용하기 위함

* 2022년 재단법인 계우회로 기본재산 10억원을 출연하였음



2025년 공휴일 및 중앙교우회 주요 일정

1월

01월 01일(수) 새해
01월 29일(수) 설날/구정

8월

08월 15일(금) 광복절

2월

02월 07일(금) 중앙고등학교 졸업식
02월 07일(금) 중앙중학교 졸업식

9월

09월 제2회 중앙교우 당구대회 예정

3월

03월 01일(토) 3·1운동 기념 중앙교우 등반대회
03월 03일(월) 3·1절/대체공휴일
03월 04일(화) 중앙중학교/ 중앙고등학교 입학식

10월

10월 03일(금) 개천절
10월 05일(일) 조선소년군 103주년 기념일
10월 06일(월) 추석
10월 08일(수) 추석/대체공휴일
10월 09일(목) 한글날
10월 02일(목) 중앙인상 후보 추천 및 의견 마감일
10월 23일(목) 제36회 올해를 빛낸 중앙인 선정위

5월

05월 05일(월) 어린이날/부처님오신날
05월 06일(화) 어린이날/대체공휴일
05월 13일(화) 제2회 중앙교우회 스승의 날 기념식
05월 22일(목) 상반기 상임이사회

11월

11월 06일(목) 하반기 상임이사회
11월 14일(목)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06월 06일(금) 현충일
06월 10일(화) 6·10 만세운동기념일
06월 14일(토) 제40회 교우의 날
06월 20일(금) 개교기념일/
제116주년 개교기념식

12월

12월 04일(목) 정기총회 및 송년회,
재단법인 계우회 정기이사회
12월 25일(수) 크리스마스

中央校友會

언제나
중앙교우회와
함께
하겠습니다.

LAWFIRM SANWOO
**법무법인
산우**

대표 변호사 임 정혁 (66회)

T.02-584-5533